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를 통한 개선 방안*

전홍식
(영산대학교)

Chon, Hongsik. (2013). A Study of Effectiveness on the Types of Overseas English Teachers' Training Program.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3), 251-271.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ree sub-types of an overseas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language skill type, practicum type and culture awareness type respectively. Data were collected from mixed methods: English teacher trainees and English trainers' survey questionnaires and their subjective evaluative descriptions on their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survey from participants revealed that although all the types of overseas training program must be helpful in their classroom teaching, the trainees believed cultural awareness activities were the most helpful to their classroom teaching and the next the experiences of practicum. On the other hand implementing language training in overseas program was less productive as well as raising self-esteem as English teachers. According to the implication of the paper we need to rearrange the sub-types of overseas program in scheduling. In cultural experiences and practicum as well as language skill type, we need to find better ways to contact with native speakers in authentic situations. To do so, the author discuss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n his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in overseas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as a coordinator.

주제어(Key Words): 국외 연수(overseas in-service training), 실습형(practicum type), 문화 체험(culture experience), 언어 능력(linguistic ability), 자신감(confidence),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ability), 협동수업(co-teaching)

1. 머리말

영어 교사들의 국내 및 국외연수의 유형과 기간이 매년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은 교

* 본 논문은 2012년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됨.

사 연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 일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영어 교사 연수는 2008년도부터는 시, 도교육청 별로 특색에 맞춰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5(국내) + 1(국외)의 6개월 장기 연수 과정을 도입했다. 2011년부터는 영어 교사 심화연수를 '3(국내) + 3(국외)'체제로도 확대 개선하여 국외 연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졌다. 우길주(2012:91)는 영어 심화 연수 후 개인적인 측면 및 교수행동 측면에서 교사로서 자신감 향상이 가장 큰 연수 효과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교수법의 시도 및 경험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해외 문화 경험 등을 연수 효과로 분석했다. 권선희(2011:241)는 특히 국외 연수가 영어권 문화 및 교육 제도를 이해 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국외 연수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또 국외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은 문화 체험 및 언어 능력 향상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강후동, 2010; 민찬규, 2006; 장경숙 2007).

현재 교원 연수의 운영은 대부분 각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 연수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각 대학에 공모 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외 연수는 대개 국내 연수와 연계해서 연수 전체 프로그램 중 일부로 운영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국외 연수의 형태로는 대개 현지 어학 연수형, 현지 실습형 또는 융합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외 연수의 형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연수 기관 주체도 달라진다. 어학연수형의 경우 현지 대학의 부설 ESL 어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형태이고, 현장 실습형은 현지 초, 중등학교에서 현장 실습 형태 위주로 연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두 가지가 합성된 어학 교육과 현지 실습 과정을 병행하면 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과학부(이후 교과부, 현 교육부)에서 매년 영어 능력 및 수업 기술 향상을 통한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교원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1] 국외 연수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일환으로서 국외 연수의 실시 형태도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대로 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지정된 연수 기관 주체별로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협조 체제가 없이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국외 연수의 효과도 제 각각인 셈이다.

국내 연수의 경우에는 김재혁(2001)부터 우길주(2010)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외 연수에 관련된 연구는 강후동(2010)과 권선희(2011)등 발표된 관련 논문의 수가 적다보니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와 평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이다.[2] 국외 연수의 특성상 국외 연수에 참여하는 각각의 교사에게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

---

1) 교과부(2008) 부터 교과부(2012)까지 명기한 연수 목표를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을 요약한 것임

2) 연구 부족 원인을 권선희(2011::228)는 현지 학교 수업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자, 교사, 학생 등의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을 한계점으로 들고 있다. 논자 경험으로 보면 국외 연수 시 대개 현지 기관에서 성적 등의 자료 제공에 부정적이며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연구자가 직접 간여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효과적인 개선책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본다.

을 감안할 때 현행 국외 연수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국외 연수의 경우 어학연수형, 현지 실습형 또는 융합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교원 연수의 형태 중에서 융합형 모델을 대상으로 연수 참여 교사 및 현지 강사들의 설문 및 논자의 수년간 연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외에서의 어학 수업과 문화 체험 그리고 현지 실습들이 영어 연수 참여 교사들에게 미친 결과를 정리하고 유형별 효과를 비교하여 국외 연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국외 연수과정의 연구 배경

2.1 국외 연수의 필요성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몰입교육이 바람직하지만 최승희(2000)는 교실 수업은 매우 인공적이며 제한적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즉 자연스런 수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수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표현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을 실제처럼 경험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중에 영어 마을 체험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내에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영어 교사들에게는 국외 연수가 가장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체험 교육의 기회이고 대책이 될 것이다. 교원 연수는 교사의 수업 능력 배양과 영어구사 능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민(2002:401)도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 언어가 실제적(authentic)이고 올바른 표현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어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hoi(2000:6)는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은 실제 상황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로 언어 훈련을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므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적용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장 하는데 특히 영어 사용 국가에서의 연수가 영어 구사력을 높게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접촉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며 그럴수록 실제 수업에서 CLT를 실제 적용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했다.[3] Lee(2003:222)는 한국처럼 EFL 환경에서는 교실에서는 정통적인 의사소통 중심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

3) 나머지 둘은 첫째, 의사소통에 관한 교사의 믿음이 교실에서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므로 좀 더 CLT 관련 연수를 시키면 교사들이 CLT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실제 수업에 반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영어소통 능력이 높다고 자가 평가하는 교사 일수록 더 많이 CLT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문에 교실 밖에서도 마찬가지 이며 교사가 먼저 정통한 입력 자료를 습득해야한다고 했다. 따라서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영어 구사력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 국외 연수가 영어 구사력 증진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국외 연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가 적고, 영어 사용 국가들을 방문하여 문화 체험을 할 기회가 적다 보니 교사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제 수업에서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홍식(2012: 134)은 대부분 교사들은 영어 말하기 능력에 자신감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Choi(2000:21)는 낮은 자신감이 원인이 되어 의사소통 교수법 적용에 장애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어 구사력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부족이 의사소통 교수법 적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에 좀 더 자신감 있고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국내 연수와 영어권으로 더 많은 여행이나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영어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 및 자신감을 확보하고 실용적 영어를 통해서 올바른 영어를 구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외 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국외연수를 통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국외 현지 교육기관에서 수업 참관이나 실습을 통하여 정통한 교실 영어를 배우고 활용하며, 교육 운영에 관한 행정은 물론 현지 교사들의 활동과 자료를 직접 경험하고 얻어서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외 연수의 역할이 영어 교사 심화 연수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2.2 국외 연수의 방향

교과부(2012)는 국외 연수 중심으로 설계된 수업 실습형 연수의 목표를 첫째, 원어민 대체 교사나 교원 연수를 위한 강사 요원 등 영어 선도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둘째, 국외 현지 수업 실습, 동료 교사의 수업 컨설팅 운영을 통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영어교육 교수 학습 모델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개월로 되어 있는 심화연수의 경우 국내 3개월과 국외 3개월로 기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연수 방식은 국내 연수에서는 해외 수업 실습 사전 준비를 하고 국외 연수 다녀온 후에는 우리 교육 상황에 맞는 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동료 교사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이전의 5+1의 진화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외 연수에서 포함해야 할 활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현지 학교에서 수업 참관이나 직접 수업 실습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되 수업 실습은 단독 및 협력 수업, 방과 후 지도 등 현지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많은 교육적 활동을 경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외 연수의 주류는 5+1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교과부 지침에서는 국외 연수 시기 및 모형을 다양화 하여 국외 연수가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획일적 국외 연수 모형에서 탈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4] 한편으로 국내의 교원 연수기관들이 국외 연수 기관을 물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부는 국외 연수 기관들을 추천했다. 당시 국외 연수 기관의 교육 과정과 시수를 검토해 보면 국외 연수 기관들은 교수법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이론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지 초. 중등 교육 현장에서 수업 실습을 실시하여 수업 기술을 확대하도록 하는 최근의 교원 연수 운영 방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9년 국내 영어교사 국외 연수 기관 추천 기관[5]

국가	기관수	과정(시수)	비고
미국	2	TEFL 또는 TESOL(120)	TESOL 또는 TEFL 과정은 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 포함 1개 대학은 최소 인원 50명으로 지정
	3	Language+ESL Methodlogy(120)	
	1	맞춤형 또는 ESL 자격증	
캐나다	1	TESOL(36)+Language(40)+문화체험(40)	
	1	TEFL(120)	
영국	1	TESOL(120)	

만약 영어 연수 참여 교사들이 TEFL이나 TESOL 자격증 취득 과정에 등록하여 TESOL 이론 교과목들을 공부하고 영어 구사력 증진을 위해서 언어 기능과목의 수강을 병행하면서 학교 수업 및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러한 과정의 목적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의 일환이므로 국내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융합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수 기관에서 실시하는 융합형의 경우 영어 연수 참여 교사들은 국내에서 5개월간 동안 영어 구사력 과정 외에 국외 연수를 실시하게 되므로 국외 연수의 운영 방향이 중요하다. 국내 연수와 차별화를 두되, 국내 연수 과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외 연수 활

4) 교과부(2009:9)의 국외과정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의 모색을 위한 개선안으로 제시됨
5) 교과부(2009:16)의 국립 국제 교육원 EPIK팀의 국외 연수 기관 제안서 접수 현황 도표 중 비용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본고에 맞게 재 도표화한 것임

동이 국내 연수와 중복 되거나 국내 연수로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외 연수에서만 가능한 활동이어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학 기능 연수 교육 보다는 현지 초, 중등학교에서의 실습형 연수나 융합형 연수가 바람직한 모형이다. 정리하면 2003년부터의 2009년까지 어학 중심의 교원 연수를 실시해오다가 2010년부터 교과부는 국외 심화 연수의 다변화와 실습 활동(practicum)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수 체계의 개편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는 수업 실습형 연수를 실시하기 시작 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5+1의 심화 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국외 연수의 유형

국외 연수는 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 연수원, 교원 연수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 독자적으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다.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국외에서 연수하게 될 교육 내용과 현지 위탁 기관까지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외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 국외 연수를 실시한 11개 기관에 대한 국외 연수 유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학연수 중심의 국외 연수를 실시한 2개 기관과 현장 실습형으로 국외 연수를 실시한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어학연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융합형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수 기간 중 실시한 주요 현장 수업 활동으로는 현지 학교 방문, 수업 참관, 수업 지도안 작성, 협동 수업, 단독 수업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 졌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2012년에 실시한 국외 연수 유형[6)]

기관	국가	기간(대상)	유형	특징	숙소
충남 교육원	뉴질랜드	1달(중등)	실습형	현지 교사와 팀티팅	홈스테이
울산 교육청	캐나다	1달(초등)	실습형	팀별 연구 활동	홈스테이
전남 교육청	캐나다	6개월 (초・중등)	실습형	현장연수	홈스테이
제주 교육청	호주	1달 (초・중등)	융합형	3주 어학연수 +1주 참관	홈스테이 및 기숙사
강원 교육청	미국	2달 (초・중등)	융합형	어학연수+현장 실습	홈스테이 및 기숙사
경남 교육청	미국	1달(초등)	ESL과정	수료증과정	별도 운영

6) 2012년에 국외 연수 실시하고 언론매체나 해당 기관 홈피에 그 내용을 공개한 기관들의 내용을 본고에서 정리한 것임

위의 표에서처럼 2012년에 실시된 연수 유형을 보면 융합형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학연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융합형 국외 연수 모델은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 연수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모형이라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표1.의 어학연수 중심의 연수 형태로부터 2011년 표2.에서 융합형으로의 변화에는 영어권 초, 중등 현장에서 현지 학생들과 영어 사용 환경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 실습 과정이 포함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융합형 국외 연수를 실시한 특정 기관의 국외 연수 경우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융합형 연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3. 국외 연수 융합형 프로그램의 분석

3.1. 국외 연수중 융합형 프로그램의 개관

연구 분석은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3년 융합형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삼았다. 2009년 및 2010년 2회에 6개월 심화 연수를 실시한 A 대학 연수원의 5+1 심화 연수 과정이었다. 국외 연수는 5주 동안 미국의 K 주립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전체 참여 인원은 47명 이었다.

표3. 국외 연수 참여 교사 인적 사항

인원	47명
성별	남(9) 여(38)
교육 경력	5년 미만(29) 5년 - 10년(9) 10년 이상(9)
장기 또는 단기 연수 경험	있다(19) 없다(28)
연수 목적의 국외 방문 경험	있다(6) 없다(41)

2013년도에는 미국 M 주립대학에서도 K주립대의 연수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였다. 첫 번째 주에는 미국 대도시 방문을 통한 교육적 측면에서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다. 연수 참여 교사들은 국내에서 사전에 계획한 활동 계획대로 조별로 행동 하였다. 두 번째 주부터는 연수 대학에서 4주간 융합형 연수 과정을 시작하였다. 전반 2주는 현지 대학이 개설한 어 기능 과목을 교실 수업으로 진행 하였다. M 주립대학에서는 언어 기능 과목 외에 문화 이해 관련 과목이 추가 되었다. 수업 내용은 현지 교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연수 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이 이루어 졌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현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시간표 및 교과목 조정하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였다.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진 후반 2주 과정을 1주씩 나누어 첫 주는 실습 학교의 현지 교사를 통하여 수업

참관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현지 수업 방식을 이해하고 현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마지막 1주는 한국에서부터 미리 정한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주제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제기차기, 젓가락 사용법, 공기놀이, 한국 노래, 화폐 등 다양 했다. 1인당 2회 이상 시범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총 4주간의 연수 기간 동안 하루 6시간씩 총 120시간을 이상을 이수하였다. 120시간의 규정 시간외에 방과 후 스케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장 방문, 공장 견학, 가정방문, 단체 모임 초청 방문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현지인들과 접촉 시간을 확보했다.[7)]

표4. 연도별 초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프로그램 개관

연도	미국 연수 기관	참가 인원	교육과정 구성	기간	비고
2009	K 주립 대학	16명 남(4) 여(12)	문화체험(도시 탐방)	1주	
			수업 참관	2-3주	
			수업 실습	4-5주	
2010	K 주립 대학	19명 남(4) 여(16)	문화체험(도시 탐방)	1주	
			수업 참관	2-3주	
			수업 실습	4주	
2013	M 주립대학	12명 남(1명) 여(11명)	문화체험(도시 탐방)	1주	
			수업 참관	2주	
			수업실습	4주	

마지막 2주간은 현지 실습 학교의 현직 교사가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맡아서 학교 운영 시스템 안내, 시설 소개, 수업 배정 및 수업 준비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 까지 업무 전반을 조정하였다. 각 반에 실습교사들이 분산 배치되어 수업 참관과 시범 수업을 실시하였고 어학 수업을 담당했던 원어민 강사들은 지도 교사로서 역할을 하며 연수 교사들의 수업 실습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평가를 담당하였다.

3.2 현지 융합형 프로그램의 목적 및 특징

2012년 교과부는 실습형의 경우 국외 연수 목표를 현지 공교육 기관에서 수업 실습을 권

7) 방문지 선정은 현지 언론에 A대학 영어 교사 심화 연수단의 K 주립 대학 방문이 보도되어 현지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가정에서 22건의 초청이 접수 되었으며, 스케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방문하였고 2010년에는 2009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 대상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 후 방문했다. 2013년도에는 현지 강사의 가정집 초대 위주로 방문했다.

장하고 충분한 실습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A 대학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현지 사립학교의 여름방학 중에 현장 실습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5월에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현지 수업을 통하여 영어 수업에 자신감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국외 실습 경험을 통하여 국내 영어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국내 영어 교육에 변화가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Chang(2010:132)은 교실 수업 교육 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수업 관행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2주간의 짧은 실습기간이지만 국외 현직 교사들의 수업 때 사용 언어와 방식을 관찰하여 본인의 관행적인 수업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습 경험을 통하여 국내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국외 연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융합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어학 수업과 현지 실습 그리고 문화 체험의 세 영역간의 연수 효과가 국내의 현장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무엇을 느끼는지 융합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3.3 국외 융합형 연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3.1 현지 문화 체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연수의 목표는 영어구사력 증진과 수업 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국외 연수에서는 현지 문화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내연수와 차이점이 있으며 과연 문화 체험이 두가지 연수 목표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현지 수업 활동과 문화 체험 활동 중 어느 영역이 더 국내 영어 수업에 미친다고 연수교사들은 인식하는지가 궁금하였다. 국외 연수 과정에서 이들 영역간의 효과를 파악 할 수 있다면 향 후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하여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국외 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국외 연수중 수업 내용과 방향에 관한 문항은 선택형으로 처리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표로 처리 하였고, 문화 활동에 관한 내용은 기술식으로 하여 문항으로 처리하였다.

표5. 문화체험과 실습 활동의 비교 문항

설문 문항	응답척도	5	4	3	2	1
1. 문화 체험 활동이 실습 활동 보다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된다.	2009년	8	3	3	2	0
	2010년	9	4	6	0	0
	2013년	5	3	3	1	0
	합계(명)	22	10	12	3	0
	비율(%)	47	21	26	6	0

*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전혀 아니다

표 5.의 1번 문항의 설문을 통하여 국외 연수 기간 동안 문화 체험 활동과 현장 실습수업 중 연수생들은 어느 영역에 좀 더 비중을 두기를 원하는가 묻는 설문에 68%가 현장 실습보다는 문화 체험이 더 도움을 줄 것으로 응답 하였다. 국외 연수 과정에서 문화 체험에 대하여 현장 교육과 연계한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문화체험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항목에 따라 응답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A대학의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문화 체험 방식이 실제 수업에 문화체험의 전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길주(2012: 90)는 심화 연수 이후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자신감 확보가 가장 큰 연수 효과라고 했고 그 외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해외 문화 경험 등을 연수 효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의 국외 연수의 방향은 실습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언급한바 있다. 설문대로 문화체험을 통해서 얻는 경험과 지식이 실습 활동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국외 연수 시 문화 체험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활동과 항목들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문화 체험 활동 내용들이 좀 더 교실 수업을 진행 할 때 자신감을 부여하고 정통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화 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향 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본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체험 활동이 좋았던 점을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유 기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방향은 본고의 주제인 문화체험, 의사소통 능력 배양, 그리고 실습에 대한 효과 등의 항목으로 영역을 구성하였는데 문화체험 활동에 대한 기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하여 좋았던 점.

- 현지인들과 생생한 영어로 의사소통 기회
- 현지 문화를 실제 경험 한 것이 미국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됨
- 예를 들어 설명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실제 체험으로 현지 문화가 가깝게 느껴진다.
- 현지 문화체험을 배경지식으로 갖게 되어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4주 동안 체류 하면서 정규 수업 이후나 토요일과 일요일등 주말을 이용해서 문화 체험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단체로 가정집에 3회 초대를 받아 현지인 가족들과 식사 예절과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을 체험하였고, 야구 방망이 생산 공장과 위스키제조 공장을 견학 하였다. 지역의 말 사육 농장주들의 정기 모임에 초대받아 현지인들의 생업을 관찰하고 파티에도 참석하였다. 현지 로타리 클럽(Rotary Club) 모임에 초청받아 지역민들과 친선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였다. 또 운동경기 관람이나 미국의 역사적 유적지등을 방문하여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주중 문화 활동은 주로 가정집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이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주말에는 시카고 도시 투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명문 대학 방문과 역사적 유물 탐방 등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일정으로 이루어졌었다.

문화 체험을 통한 현지인들과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창성 확보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회를 갖게 되어 영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통한 영어를 구사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언어 훈련이 이루어 지다보니 문화 체험 활동이 실습 활동 보다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을 것으로 본다. 현지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5명의 연수 교사들의 현지 문화체험 소감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다.[8)]

문항 2. 인터뷰를 통한 현지 문화체험 소감

- 광활한 대자연을 보면서 선택된 국가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즐겨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교사 A)
- 편안 복장과 생활 속에서 즐거운 분위기가 좋다. 미국의 진정한 자유를 알 것 같다.(교사 B)
- 서로 서로 망설임과 주저 없이 인사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았다.(교사 C)
- 자연과 초원이 어우러진 속에서 묻혀 사는 게 좋아 보인다.(교사 D)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기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게 우리와 비교되었다.(교사 E)

본고의 방향과 다르므로 논의에서 제외 했지만, 설문 참여 교원들은 모두 기숙사에 체류했던 관계로 홈스테이 경험을 하지 못 한 점이나, 현지 대학이 방학 중이라 캠퍼스와 기숙사에서 현지 학생들과 접촉기회가 적다보니 교류 기회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 체험 활동이 중요한 것은 첫째로 문화 체험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상호 교류를 통한 자연스런 의사 소통기회가 어학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현지인과 접촉 기회가 다양하고 기회가 많을수록 본인이 갖추고 있는 언어 능력을 활용 할 수 있어서 문화 체험 활동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영어 구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고 국내 영어 교육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넷째로 알고만 있던 현지 문화나 지리에 대한 확인이 성취감을 주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실에서 현지 교사들과 수업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며 얻는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자연스런 환경에 노출되어 창의적인 영어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체험 활동이 국내에서 수업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8) 미국 일간지 The State Journal, 2009년 7월 24일자 11면

3.3.2 어학 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Yang(2009: 178)은 교원 연수의 교육과정은 대개 언어기술과 수업기술을 동시에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전홍식(2012:134)은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교사들이 영어 유창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여 언어기술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Choi(2000:21)는 현장 교실 수업에서 좋은 영어교사의 요건으로 구두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국외 연수에도 실습형 심화 연수 방식이 도입되면서 언어기술 중심의 연수보다는 수업기술에 중점을 두는 실습형 연수로 모형이 바뀌는 경향이라고 앞서 지적했다. 2010년 까지는 국외 연수도 TESOL 자격증 과정, 어학연수 과정, 어학연수 및 현장 실습의 융합 과정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국외 연수의 바람직한 모델 설정이 필요해 졌다.[9] 본고에서는 국외 융합형의 연수 과정 중 실습활동이 어학 교육보다 국내 교육현장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설문했다. 설문을 통하여 연수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어학교육과 실습 활동의 비교문항

설문 문항	응답척도	5	4	3	2	1
2. 현지 어학 교육보다 실습 활동이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된다.	2009년	6	8	2	0	0
	2010년	1	7	9	2	0
	2013년	7	3	2	0	0
	합계(명)	13	18	13	2	0
	비율(%)	28	38	28	4	0

*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전혀 아니다

본 설문 응답자들은 국내 연수 5개월 동안은 어학 중심의 수업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집중하였다. 국외 연수 기간에도 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초기 2주간은 현지 ESL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 기능 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어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국외 연수에서는 어학 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업 보다는 수업 기술을 향상 시키는 실습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66%임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국외 연수 중 어학수업 시간에는 현지 현직 교사와 TESOL 전문 강사들로 이루어진 맞춤식 별도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에 설치된 일반 ESL 과정과는 수업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맞춤식 수업이라서 영어 수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표현법, 그리고 수업 기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 교과부는 2010년도 연수 지침에서 영어 연수가 어학 능력과 교수법 이론에 치우쳐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어 교사의 TEE 인증제 중심의 연수를 권장하기도 했다.

66%의 비율에 해당하는 31명이 현지 어학 교육 보다는 실습 활동이 국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어학 수업 내용의 장점과 단점을 주관적인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문항 3. 교실 수업 관련 만족스러운 점
-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체계적인 수업 진행
- 긍정적이고 피드백이 좋다.
- 강사들이 친절하다.
-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을 배움
- 다양한 수업 자료를 얻음
-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배움

현지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어학 기능 과목을 담당했던 강사들이 당시 현직 교사나 TESOL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적 주제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공감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국외 연수도 국내 연수의 연장이므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 과정에 어학 수업을 포함해왔으나, 국외 연수라는 특성상 짧은 기간에 어학 수업 영역과 실습 영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영역간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문 하였다. 연수 참여자들은 국외 연수 동안에 미국학교에서 현지의 수업 과정과 운영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던 실습 과정이 어학 수업 보다 더 유익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국외 연수 참여 교사들이 연수중 어학 교육 수업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기술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왜 실습과정을 선호하고 또 국외 어학 수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문항 4. 교실 수업 관련 부족한 점
- 외국인과 교류 부족
- 국내 연수와 별도의 교과목 수업 진행으로 연계성 부족
- 국내 연수에서 수업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복 내용 발생
- ESL 강사와 현직 교사간의 강의 포인트가 맞지 않음
- 국내 연수중의 연수생들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배치 고사 실시 등의 시간 낭비
- 담임교사와 의견 나눌 시간이 부족
- 현장 지도에 경험이 많은 교사 부족

본 설문 응답자들은 각국으로부터 학생들과 의사소통 기회를 희망한다. 맞춤식 어학 수업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대학에서 개설하는 ESL 과정에 분산 배치되어 외국인 학생들과 공동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언어의 네 기능 과목을 중심으로 되어, 연수 교사들의 직업적 특성이 배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난다. 또한 위탁 교육이다 보니 교육과정, 강사 및 교재 선정은 물론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내 연수기관과는 무관한 어학연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설문에 의하면 국외 연수 동안 현지에서 맞춤식 어학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수기관과 국외 연수 기관이 사전에 공동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제반 내용들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준비한 후 충분한 교류와 정보를 공유를 해야만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0]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수업과 중복되거나 동 떨어져 연계성이 없게 된다.

3.3.3 현지 실습활동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어학 중심의 연수가 언어 기술 증진에 목적을 둔다면 실습 활동은 수업 기술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학 중심의 연수를 통해서 언어 구사력이 확보해야 효과적인 영어 수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로 보면, 영어 교사 연수도 어학 연수형과 실습형의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는 연수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영역이 혼합된 융합형의 경우이기 때문에 현지 실습 활동이 영어 구사력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설문해 보고자 했다. 응답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표 7. 현지 실습활동의 영어구사력에 대한 영향

설문 문항	응답척도	5	4	3	2	1
3. 현지 실습 활동이 영어 구사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2009년	1	8	5	2	0
	2010년	4	6	4	4	1
	2013년	7	4	1	0	0
	합계(명)	12	18	10	6	1
	비율(%)	26	38	21	13	6

*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 =보통이다 2= 아니다 1=전혀 아니다

응답자들은 현지 실습 활동이 본인의 영어구사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를

10) 권선희(2011:242)는 국내 연수 기관과 국외 연수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수행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업 참관과 시범 수업을 병행했던 연수 교사들은 국내 수업에서의 수업과는 다른 수업 방식, 기법, 수업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미국 학생들로부터 흥미를 끌어내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도입부부터 예상과 다른 상황을 접해야하고 다른 접근법으로 시도해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11] 그러나 재미있게 수업을 마무리 한 후에 대부분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자신감을 얻었다. 현지 실습 과정에서 정통한 교실 영어를 현지 교사들의 수업 참관을 통해서 관찰하고, 본인들의 시범 수업을 통해 수업 방식은 물론 영어 구사력도 증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수 교사들은 현지 교사들이 쓰는 교수용어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오히려 수업 기술을 많이 배웠다는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 연수 융합과정 과정에서 실습 과정은 수업 기술 보다는 자신감 확보와 영어 구사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국외 연수 교사 및 담당 강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

전홍식(2012:134)에 의하면 영어 교사들은 자가 평가에서 듣기나 말하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지만 국내에서 교사 연수를 담당 했던 원어민들은 오히려 사소한 문법적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어민 강사들은 모두 국내에서 교원 영어 연수 경험이 많아 국내 영어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에 관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내국인 영어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과 특징을 모르는 현지 원어민 강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연수생들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장단점을 영어의 유창성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역은 발음, 문법, 어휘, 유창성 그리고 이해도 중심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어학 기능 수업 중 영어 연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역별 장단점을 개인별로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다. 평가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원어민 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영어교사들의 장단점에 대한 전반적인 자유 기술식 총평을 제시했다.

문항 5. 영어 연수생들의 장점
- 성실하고 영어 이해력이 좋음
- 과제 제출 충실
- 수업에 열정적이고 활동에 적극적
-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한 학습기회 확대

11)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 시간에 수업 주제에 따라서는 도입부부터 국내 수업에서 보다 더 많이 할애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젓가락 사용법" 시간에는 준비한 초컬릿을 시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자발적으로 쉽게 몰입했지만, "한국의 화폐 소개" 시간은 현지 학생들에게는 흥미가 없어 보였다. 또한 음악 시간에 율동은 미국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생소 하였다. 효과적인 교실 수업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려다보니 교실영어 구사력도 중요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따른 창의적인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 한국에서 현장 수업 준비 충실
-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
- 문법 기초가 강하다

어학측면에서도 장점을 기술했지만 오히려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언급과 강조가 많았다. 영어 연수교사들이 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질문을 하며 전체적으로 수업의 전체적인 질을 높게 만든 것으로 현지 강사들은 평가했다. 수업과 문화 체험 활동의 병행으로 매일 바쁜 일정 이었지만 과제도 충실하게 제출하여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평했다. 영어 구사력에 대한 평가에서 어학 능력 측면에서 단점만을 정리해 보았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6. 영어구사력에 대한 평가
- 의사 소통능력 배양 필요
- 어휘 선택의 적절성 부족
- 발음 개선 필요
- 자신감 부족
- 의사 표현 시 명료성(clarity) 부족
- 훈련 부족

현지 원어민 강사들은 연수 강사들에 대하여 영어 교사로서 전반적으로 훌륭한 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영어 구사력에 대한 영역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홍식(2012)에서는 국내 연수를 담당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영어 연수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은 훌륭하지만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 연수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어휘 선택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연수 동안 교실 수업 외에 수업 참관과 시범 수업 등을 통한 현장 실습과정에서 영어 교사로서 전문성 있는 영어로 설명해야 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 구사력에 대한 문항 6.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언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내용은 논자가 2012년에 미국 U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8명의 연수 참여 교사들에게 대한 현지 강사들의 의견과도 일치 하고 있어 유의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2)]

12) A대학은 2012년에는 융합형 국외 연수 대신에 미국 캘리포니아 U대학의 Extension Program을 통하여 어학 기능 중심의 국외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참여 교사들에 평가를 보면 수업 활동에 열성적이고 자질이 뛰어나지만 자신감 부족과 유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항 6과 항목이 유사함.

4. 제언 및 평가

영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변화해야 하며 연수를 통해서 교육에 관한 새로운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5 + 1의 국외 연수의 융합형에 참여한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서 세 영역에 대한 인식도를 통하여 국외 연수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선 국외 연수의 흐름이다. 어학 교육에서 실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5 + 1의 국외 연수 모형 중에서 융합형이 주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어학연수 형태 보다는 실습 위주로 국외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설문에서 일부 교사들은 실습이전에 어학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어학연수가 전제되는 실습이 되려면 융합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결론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둘째로, 국외 연수와 국내연수의 가장 큰 차이는 문화 체험이다. 국외 연수는 국내 연수를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국외 연수 정규 시수에도 포함 되지 않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 체험 방식은 현지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하였다. 연수 교사들의 응답은 수업 실습에서 얻는 지식보다 문화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국내에서 현장 교육에서 도움을 더 많이 줄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수 참여자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전체 연수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외 연수에서 문화체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하고 좀 더 바람직한 체험 활동이 되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 번째로, 어학 기능 중심의 교실 수업을 위한 국외 연수는 연수 교사들에게 선호도 가장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맞춤식 어학 수업은 특수 목적의 영어 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만 각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외국인과 의사소통 경험을 원하는 연수생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의 수업은 국내 영어 교사들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수업의 질이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수업을 참관하고 시범 수업으로 이루어진 실습형 연수가 국내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영민(2002:387)은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이유는 교실에서 목표어의 노출로 입력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인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이어야 하고 실제 교실 영어와 근접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 언어가 실제적이고 올바른 표현인지 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야기된다고 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국외에서 수업 참관과 시범 수업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Kim(2002:138)이 지적하는 영어 표현에 해당되는 일상적인 수업 활동의 지시하기나, 질의 응답요령, 실수 교정 등의 교실 영어를 국외 연수 시 수업 참관을 통하여 관찰하여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법을 학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외 연수에서 실습 중심의 연수가 국내 영어 수업과 직접성이 가장 크다고 본

다.[13] 또 현지 수업 참관을 통해서 현지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요령과 표현법 뿐 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육 현장을 이해하여 수업 능력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외 연수 중 시범 수업을 통해서 영어교사들이 자신감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책이 될 것이다.

5. 결론

Choi(2000:21)는 영어 사용 국가에서의 연수가 영어 구사력을 높게 한다고 믿으므로 교사들이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접촉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실제 수업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우길주(2010:90)는 국내 연수에 비해 국외 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국외 연수 프로그램 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Yeum(2012:229)은 교원 연수에 관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데 정책적인 면, 행정적인 면, 교사와 학생 에 따라 임무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인지와 반응, 믿음, 학습 수행 과정 즉 목소리나 의견이 중요한 측정 요소라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 효과 즉 영어교육 개선에 도움 여부와 연수가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었지 여부를 연구하였다.[14]

본고는 국외 연수의 융합형을 통하여 하위 영역인 문화 체험, 어학 기능 연수, 현장 실습의 세 영역을 연구 분석 하였다. 융합형 국외 연수가 영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수 참여 교사들의 인지와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서 본고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로, 문화 체험 활동 시간을 정규 연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지인들과 직접 교류를 통해서 현지 문화에 관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항목들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광지 투어형 체험 활동은 축소하고 숙소의 경우 홈스테이 방식이 바람직하며, 기숙사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현지 학생들과 접촉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등이다. 문제는 연수 교사들에게 교육적 의미가 있는 문화 체험 항목의 선정과 개발이 과제로 남게 된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문화 체험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통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문화 체험이 되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항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지 수업 참관 및 시범 수업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 수업 형태는 미국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한 최근 국외 연수의 경향이다. 수업기술과 언어기술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교원 연수의 목적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하는 형태라고 본다. 특히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통하여 영어 구사력 증진에도

13) Kim(2002:138)은 언어 사용 시 다음의 세 타입(type)을 언급한다.
14) Yeum(2012)은 국외 연수 기관 선정 기준으로 시설 및 실적, 프로그램의 질,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 가능성, 실습 과정 운영 여부 등을 들었다.

도움이 되고 영어 수업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영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얻게 된다. 영어 구사력이 좋다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범 수업은 중요하다. 따라서 융합형 국외연수에서 현장 실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연수를 주관하는 지정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국외 연수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현장 실습의 형태와 효과도 제 각각이다. 지금까지 국외 연수 기관이 제공해온 실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연수 기관들이 공동으로 국외연수를 위탁한다면 변수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국외 대학이나 어학 기관에 위탁하여 어학 중심으로 연수하는 방식은 현장 실습이나 문화 체험보다 국내 수업 활동에 도움이 적은 것으로 국외 연수 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Johns & Price(2001: 44)는 직업에 의한 특수 목적의 영어는 반드시 학습자의 필요와 시간 절약 그리고 적절성을 강조한다. 또한 내용이 직업에 맞아야 하고 일반 영어와 대조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특수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15] 국외 교원 연수도 특수 목적의 훈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어학원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심으로의 어학연수는 교원의 특수성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하다고 본다. 대안으로 기간과 시기를 조정하여 단기 TESOL 자격증 과정이나, 다양한 영어 교육 관련 컨퍼런스나 학회 등에 참여하여 현지 원어민 동료 교사들과 교류하는 전문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외 연수는 국내 연수에서 경험 할 수 없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언어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직접 경험하게 되므로 영어 교사로서 수업 활동의 배경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국외 연수에서 유리하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교원 연수에 대한 방향성 있는 국외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국내 연수의 일부로 인정하여 하여 국내 평가 기준과 유사한 항목으로 평가하다보니, 교육 과정, 프로그램 운영, 시설, 여건 등의 일반적인 평가 항목으로 구성 되어있다. 국외 연수를 평가 할 때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면 연수 참여자들에게는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국외 연수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후동. (2010). 효과적인 초등교사 해외영어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영어교육연구, 22(1), 249-272.

김영민. (2002). 초등 영어 수업의 교수언어 사용 분석. *영어교육, 57*(4), 387-407.

김재혁. (2001). 초등영어 교사 연수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13*(1), 131-161.

15) 교육과정 개발에서 Brown (2007:152)은 수요분석을 중시하고 특히 수요자의 주관적 필요를 객관적 필요보다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과학 기술부. (2008. 7).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안)*. 교육과학 기술부(영어교육 강화 추진팀).

교육 과학 기술부. (2009. 2).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안)*.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 과학 기술부. (2012. 1). *수업실습형 영어교사 심화연수 국내 연수 기관 선정 계획(안)*. 교육과학 기술부(영어 교육 정책과).

권선희. (2011). 영어교사 국외연수 수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23*(4), 225-244.

민찬규. (2006). 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5*(1), 27-45.

우길주. (2012) 초등 영어교과 전담교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 기술부 1-333.

우길주, 김성연, 김혜련, 이소영. (2010). 초. 중등 영어교사 관점에서 본 장기 심화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어 교육, 65*(2), 199-223.

장경숙. (2007).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 평가. *외국어 교육, 14*(3), 257-282.

전홍식. (2012). 영어 유창성에 관한 연구: 영어 연수 참가자들의 자가 평가와 원어민 진단 평가를 중심으로. *언어학, 20*(2), 129-144.

Johns, A. M., & Price-Machado, D. (200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43-54), Boston: Heinle & Heinle.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London: Longman

Chang, K., Jung K., Hayes D., Yeon J., Kim W., & Lee, B. (2010).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evaluation. *English Teaching, 65*(3), 3-27.

Choi, J. (2000). Teacher-learner's beliefs about proficiency goals and teaching methods for Korea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English Teaching, 63*(1), 129-165.

Kim, Youngsook. (2002).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English use in the secondary English classroom. *English Teaching, 58*(1), 219-238.

Lee, Seungbok. (2003). An analysis of primary school ESL teacher's talk. *English Teaching, 58(*1), 220-231.

Yang, S. (2009). A study of the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in Korea. *English Teaching, 64*(3), 175-194.

Yeum, Kyungsook. (2012). Inter-connectivity of quality drivers: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English Teaching. 67*(3), 227-249.

전홍식
612-743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번지
영산대학교 외국어 대학 영어학과
전화: (051) 540-7085
이메일: chonhs52@ysu.ac.kr

Received on June 2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3, 2013
Accepted on September 5, 2013